

회개와 거듭남, 정결한 지도자 되기 — 이광수의 『再生』 論 —

정 하 니*

요 약

이 논문은 이광수의 『再生』에 나타난 지도자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광수는 “돈이나 사랑이나”라는 신파적 구조를 참조하여 3.1운동 이후 타락한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진로로 ‘신봉구’라는 새로운 청년 지도자상을 제시했다. 이 지도자상은 『무정』의 교사로서의 지도자(이형식)과 『흙』의 투사적인 민족의 지도자(허승) 사이의 과도기적 지도자인데,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책무와 지도자의 요건을 깨닫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이광수가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 사상이 지도자상의 핵심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을 ‘사랑’으로 보았는데, 봉구의 사랑은 이성에 대한 사랑에서 민족, 세계를 향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변한다. 여기에는 타락한 사회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개와 속죄라는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 봉구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로 재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결성이 사랑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비로소 민족의 실천적 지도자가 될 준비를 끝마치게 된다.

주제어: 이광수, 『再生』, 지도자, 회개, 거듭남, 정결성, 사랑.

* 카이스트 대우교수

목차

1. 서론 - '통속'과 '충실한 묘사' 사이
2. 회개와 거듭남, '재생'의 원리
3. 정결한 지도자로서의 재생
4. 결론

1. 서론 - '통속'과 '충실한 묘사' 사이

장편소설 『재생』은, 1921년 4월 상해에서 귀국하고 「민족개조론」 등을 발표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광수가, '장백산인(長白山人)'이라는 필명으로 1924년 11월부터 1925년 9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이다. 『재생』은 연재가 중단되었던 『금십자가』의 속개도 미뤄둔 채 서둘러 연재를 시작했고, 연재 도중 척추 카리에스 수술을 받고도 연재를 재개하여(1925년 7월부터 재개) 1925년 9월 28일, 218회로 완결하였을 정도로 이광수가 매우 심혈을 기울인 소설이다. 그렇지만 『재생』은 이광수의 다른 장편소설, 예를 들어 『무정』, 『유정』, 『흙』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이 작품의 멜로드라마적 특성, 즉 '통속성' 때문일 것이다.

김동인은 발표 당시 이 소설만큼 독자의 환영을 받은 작품도 드물고 이 작품만큼 빨리 잊힌 작품도 드물다면서, 이광수가 '신문소설'이라는 생각에 "흥미 일방으로" 무책임하게 창작했다고 혹평했다.¹⁾ 『재생』이 '통속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 소설이

1) 김동인, 『春園研究』(七), 『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7. ; 『春園研究』(八), 『삼천리』 제7권 제7호, 1935.8.

"그만치 全朝鮮의 청년남녀에게 空前의 환영을 바든 『再生』이 또한 어찌하여 그러듯 일즉이 버림을 바덧는가. 『無情』으로서 初出發을 할 때는 春園에게는 熱과

근대 초기, 신파적 통속성을 보여주었던 조중환의 변안소설 『장한몽(長恨夢)』²⁾과 그 원본인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금색야차(金色夜叉)』³⁾와 서사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이나 돈이나’의 문제와 배신과 사랑,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 대중적 서사는 자본주의 사회 대중의 심리를 잘 파악한 것이어서 근대 초기 한일 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재생』 역시 『금색야차』 혹은 『장한몽』의 이러한 부분을 공유한다. 거기에 남녀 주인공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권선징악’으로 보이는 익숙한 결말로 끝난다. 즉 『재생』은 ‘승고의 체현’인 봉구와 ‘비속에 대한 처벌’ 대상인 순영을 통해 서사가 진행되며, 이분법적 양극의 구도를 차용하여 과잉

勇이 잇섯다. 『許生傳』으로 再出發을 할 때는, 겁과 「小心」과 「試驗感」이 잇섯다. 『再生』으로 第3次 出發을 할 때는, 다시 회복한 自信의 우에 「어차피 신문소설이 아니냐는 무책임한 느낌이 석겼든 모양이다.”(『春園研究』(七), 『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7. 256면.)

“이 소설은 하편이 써어지기 때문에 전편을 망쳐버렸다. (...) 하편에 잇서서는 이 소설전체를 新派 비극적 결말을 맺게하기 위하여 既製의 코-쓰에 억지로 인물들을 끄고고 다녔다. 다시 말하자면, 작자는 「이 인물들이면 이러케 전개되리라」는 필연적 코-쓰를 취하지 안코, 新派 비극식의 코-쓰를 만들어 노흔 뒤에 인물들을 억지로 그리로 몰아너 그런지라 하편에 잇서서는 등장인물들은 제 성격에 맞지 안는 코-쓰를 가노라고 그야말로 작자의 채쪽에 몰려서 허덕허덕 쫓겨 다닌다.”(같은 글, 264-265면.)

- 2) 『장한몽』은 《매일신보》에 1913년 5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119회 연재되었다. 1915년 연재된 속편은 조중환의 창작 신소설인데 본편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했다고 한다.
- 3) 『금색야차(金色夜叉)』는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1867-1903)가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 1897년 1월 1일부터 1902년 5월 11일까지 단속적으로 연재한 소설이다. 후에 잡지 《신소세츠(新小説)》에 1903년 1월부터 3월까지 신 속편의 연재를 재개하였으나, 1903년 10월 30일, 작가가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연재가 중단되었다. 사후, 오자키 고요의 문하생이었던 오구리 후요(小栗風葉, 1875-1926)가 비망록을 바탕으로 1909년 4월 『금색야차 종편(金色夜叉終篇)』을 완성·발표했다. 오자키 고요는, 지인이 겪은 실연(상대가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하여 배신당함)에 분개하여 착상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작가 스스로 미국여류작가 소설(버사 클레이의 『여자보다 약한 자(Weaker Than a Woman)』)의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을, 윤리 의식으로 도덕적 비학을 드러내는 멜로드라마적 속성을 보여준다.⁴⁾

『재생』이 보여주는 당대인의 두 가지 욕망-물질, 육체-은 ‘통속적’인 요소로 읽힐 수 있으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당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대립은 『장한몽』에서 보여주었던 “돈에 대한 사랑의 일방적 승리”⁵⁾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⁶⁾ 그러나 『재생』의 시대적 배경은 ‘돈이나 사랑이나’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대의(大義)보다는 개인적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 즉 “소화기와 생식기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재생』은 『금색야차』나 『장한몽』의 다시 쓰기가 아니라⁷⁾, ‘돈이나 사랑이나’를 고민할 수 있었던 시대를 지나 ‘사랑보다

4)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 『한국근대문학연구』 5(2), 2004.10.

류수연은 ‘연에서사’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설명한다. 『재생』의 삼각관계는 『무정』에 직접적으로 빚지고 있으나, 당대 인기작이었던 『장한몽』의 영향으로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욕망을 다룰 수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정』이나 『장한몽』보다도 훨씬 현실화된 연애-물질적 욕망, 육체적 욕망-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봉구 스스로 자신의 처지가 ‘하차마 간이치’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이광수는 당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욕망의 문제를 서사화했다고 하였다. (류수연, 『타락한 ‘누이’, 그리고 연에서사-이광수의 『재생』 연구』, 『구보학보』 13, 2015. 236면.)

5) 강지윤, 『한국문학의 금욕주의자들』, 『사이間SAI』 16, 2014. 202-203면.

강지윤은 우리 문화·문학사에서는 ‘근대적 개인’이 ‘사랑’에 의해서뿐 아니라 ‘돈’에 의해 분할되었다는 사실이 자주 간과된다고 지적했다. ‘사랑의 주체’, ‘근대적 개인’으로 자처하는 동안 식민지 조선은 근대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적 개인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지윤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사랑의 시험이 성적(性的) 교환의 문제로 반복해서 나타난 것은 사랑과 자본이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관념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인, 가장 명백한 두 적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재생』을 ‘통속성’의 관점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같은 면)

6) 서희원은 이광수가 자본주의의 미덕을 강조하였고 그것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고뇌와 번뇌를 『재생』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서희원, 『근대의 영웅, 부자의 탄생』, 『한국학연구』 34, 2014.)

7) 와다 도모미는 이광수가 『무정』에서도 사용한 “특정 작품을 참조하면서도 그와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 '이상보다 돈'을 선택하는 시대를 해부하는 것이다. 서여진은 『재생』과 비교하며 읽어야 할 『금색야차』나 『장한몽』과 가장 다른 점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개입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장한몽』과 『재생』의 관계를 유추해본다면, 『금색야차』의 변안인 『장한몽』에 나타나는 한국식 신화의 구조와 내용을 참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 이광수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을 구축한 것이 『재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광수는 『재생』의 연재를 앞두고 쓴 '작자의 말'에서, "재미없는 예술품은 예술품이 아니어나와, 재미만이 예술품의 생명도 아니"라면서 "내가 가진 모든 동정과 모든 성정과 모든 힘을 다하여" 『재생』을 쓸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쓰고 싶기 때문에" 『재생』을 쓴다는 말을 통해 이광수가 이 작품을 통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이광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責任을 一毫라도 면할 수는 없"다면서 자신이 소설을 쓰는 가장 큰 목표가 "이것이 朝鮮人에게 읽혀지어 利益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을 쓸 때, 독자로 "나와 같이 젊은 朝鮮의 아들 딸을 염두에" 두고

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구축"하는 창작 방법을 『재생』에도 도입하여 "『금색야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복선 위에 『재생』을 창작했다"고 보았다. 그러니 영향 관계가 보이더라도 주제의식의 측면에서는 원작(들)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와다 도모미,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옥, 2014, 220면.)

8) 서여진, 「『재생』에 나타난 『장한몽』의 구조」, 『춘원연구학보』 5, 2012.12. 308면.

9) 이광수, 「작자의 말」, 『동아일보』 1924.11.8.

여기에 덧붙여 이광수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대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별거벗은 조선의 강산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울고 웃는 조선 사람들이 보이고, 그중에 조선의 운명을 맡았다는 젊은 남녀가 보인다. 그들은 혹은 사랑의, 혹은 황금의, 혹은 명예의, 혹은 이상의 불길속에서 웃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죽고 한다. 이러한 속에서 새 조선의 새 생명이 아프게, 쓰리게, 그러나 쉬임 없이 돌아 오른다."

“젊은 朝鮮人에게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通情”을 갖고 쓴다는 것이다.¹⁰⁾ 이광수는 자신의 소설이 통속소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통속소설이란 흥미 본위의 소설이란 말인데, 자신은 재미만을 위한 작품을 쓰지도 않을뿐더러, “독자의 흥미를 목표로 붓을 들어 본 일”도 없다는 것이다. 이광수는 소설을 “某時代의 某方面의 충실한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재생』을 흥미 본위의 통속소설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의 일각을 여실히” 그리는 소설로 보아야 한다.

나는 寫實主義 全盛時代에 청년의 눈을 떴는지라 내게는 寫實主義的 色彩가 많다. 내가 小說을 「某時代의 某方面이 충실한 記錄」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無情>을 日露戰爭에 눈 뜬 朝鮮, <개척자>를 合併으로부터 大戰 전까지의 朝鮮, <再生>을 萬歲運動 이후 一九二五年頃の 朝鮮, 방금 《東亞日報》에 連載중인 <群像>을 一九三〇年代의 朝鮮의 기록으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 때문인가 한다. (…)

<無情>의 「리형식」이나 <開拓者>의 「성재」, 「성순」, 「민」 같은 人物은 당시 제라고 하던 知識階級 朝鮮青年들의 모형으로 그린 것이오. 결코 작자의 理想하는 人物로 그린 것이 아니며 <재생>의 「신봉구」, 「김순영」을 중심으로 한 一群의 人物도 당시의 青年階級の 寫實的인 일단면을 보이려는데 不過하였다. (…)

「無情」, 「開拓者」, 「再生」, 「群像」등에서 각각 당시의 時代相의 一角을 여실히 그려보라고 한 동기를 반성하여 분석해보면-

1. 그 時代의 指導精神과 環境과 人物의 특색과 및 時代의 弱點등을 暴露 說明하자는 歷史學的 社會學的 興味.
2. 前時代의 解剖로 인하여 次時代의 진로를 암시하라는 微表.
3. 再現, 描寫 자신의 藝術的 興味

10) 이광수, 「余의 作家的 態度」, 『동광』 20, 1931.4. 82면.

등이다.¹¹⁾

이광수는 『재생』 연재 당시, “조선의 운명을 맡았다는” “새 조선의 새 생명이 아프게, 쓰리게, 그러나 쉬임 없이 돌아 오르는” 모양을 그리겠다고 했다. 1931년에 쓴 위의 인용문에서도, 이광수는 이 작품에서는 “만세운동 이후 1925년경의 조선”을 기록하였다고 술회했다. 이광수는 “시대상의 한 부분을 여실히” 그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인용문의 말미에 제시된 것처럼, “전시대의 해부”를 통해 “차시대의 진로를 암시”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차시대의 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재생』의 서사 내적 시간이 이 소설이 연재된 시기(1925~1926)와도 일치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¹²⁾ 이 소설은 3.1운동의 후일담 소설로도 읽을 수 있다.¹³⁾ 즉 이광수는 ‘동시대적’ 작품을 연재하면서, 3.1운동 이후 타락한 조선의 현실이라는 ‘시대상의 한 부분’-특히 김순영과 백윤희 등으로 대표되는 ‘소화기와 생식기의 세상’-을 ‘해부’하여 다음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차시대의 진로’로 제시한 것이 바로 ‘신봉구’라는 청년의 ‘재생’이다. 그래서

11) 위의 글, 82-83면.

12) 서사 내적 시간이 3.1운동부터 약 7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주요 사건은 봉구가 출소한 후부터 순영이 자살할 때까지 대략 4년 정도이다. 소설이 연재되던 시기와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부터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생』은 ‘동시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은혜 역시 이 소설의 시간 지표 제시방식이 독자들에게 당대성의 감각으로 다가갔다고 보았다. 『재생』이 1924년에 발표되었는데, 봉구와 순영이 만난 것이 ‘기미년 이월 사오일 전’이고, 봉구가 4년 동안 순영에게 충실했다는 점으로 보면 첫 장면은 1924년이고 백윤희와 동래은천에 간 것은 1923년 겨울이니, 당시 독자들은 동시대성을 느꼈을 것이다.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34-135면.)

13) 『재생』을 3.1운동 후일담 소설로도 본 연구도 있다. 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민족문학사연구』 58, 2015.), 이혜령, 『정사(正史)와 정사(情史) 사이 : 3.1운동, 후일담의 시작』(『민족문학사연구』 40, 2009.) 등의 논의 참조.

『재생』은 제목 그대로 새로운 청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전 시대의 청년 지도자의 재생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무정』과 『재생』 사이의 3.1운동은 이광수의 내적 변화뿐 아니라¹⁴⁾ 조선의 사회적 변화도 가져왔다. 『재생』에서 지도자 과정을 거치고 있는 봉구는 3.1운동 이후의 변화를 내재화하고, 다음 시대의 지도자의 요건을 갖추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무정』의 교사로서의 지도자(이형식)과 『흙』의 투사적인 민족의 지도자(허승) 사이의 『재생』에서는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 정결성을 강조하는 신봉구라는 지도자 후보의 재생을 통한 ‘지도자 수련 과정’이 제시되는 것이다.

특히 『재생』의 ‘신봉구’라는 지식인 청년 지도자에게는 이광수에게 영향을 미쳤던 여러 사상들이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광수가 메이지 중학 시절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한 기독교 사상이 지도자상의 핵심을 만들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광수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는 ‘종교’를 일종의 ‘신학문’의 하나로 받아들였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¹⁵⁾ 이광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

14) 이광수의 사상적 전회는 3.1운동을 전후하여 나타나는데, 그 계기가 안창호와의 만남이었음은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 2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서영채 역시, 이광수가 임시 정부에서 도산 안창호를 만나 홍사단 단원이 된 후, 이광수의 글의 논리가 매우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해로 가기 이전의 이광수가 사회진화론을 내세우는 현실주의자였다면, 귀국 후에는 덕과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모럴리스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서영채는 민족주의자 이광수는 그대로이지만, 안창호를 만난 후 실천 방략이나 구체적 지침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재생』 속 신봉구의 가혹한 자기 희생 정신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서영채, 『자기희생의 구조-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 2013. 참조)

15) 이광수는 메이지학원에서 처음 성경을 접했는데, 전승 기념 기도의 세속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톨스토이의 종교관·사랑-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았다고 한다.

“넋날 밋다가 파문을 당하였지요. 그런 뒤는 조선의 기독교는 내 마음에 맞지 안

고 그의 생활의 원칙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이를 적용시켜 그만의 독특한 문학관을 형성하였다.¹⁶⁾ 요컨대 이광수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 자신이 ‘공부’한 성경적 내용과 톨스토이의 ‘사랑’이라는 기독교관, 그리고 안창호의 기독교관¹⁷⁾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목인 ‘재생’ 역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재생’을 위해서는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회개와 속죄의 시간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재생’이 가능한데, 이광수는 신봉구를 통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정결성’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이 ‘정결성’의 근원과 그 정체를 이광수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언급한 ‘산상수훈’(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도자상의 차용을 통해 찾아보려 한다.

어서 및 지를 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사상에다가 석가의 사상을 거친 제3사상이 말하자면 나의 사상이 되었겠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영향을 만히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大聖이 오늘 朝鮮에 태어난다면? - 李光洙씨와 基督을 語함』, 『삼천리』 1932.1. 67면.

서회원은 이광수가 ‘기독교’와 ‘문학’을 거의 동시에 접했는데, 이 두 가지는 ‘서구의 경이로운 문화 양식’이며, 문명 발전의 내적 원동력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보았다. 그는 ‘문학’, ‘종교’, ‘정치’는 ‘삼위일체’라 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서회원, 『이광수의 문학·종교·정치의 연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면.)

- 16)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그것을 ‘지식’으로 수용한 이광수의 문학에는 성경 속 인물들의 행적이 자주 비유적으로 등장한다. 『재생』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항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논하겠다.
- 17) 도산 안창호는 선교사들을 통해 구세학당에서 만난 기독교의 가치관과 신앙을 일생동안 지켰다고 한다. 이광수가 『도산 안창호』에서 서술한 부분과 달리, 실제로 안창호는 성경도 자주 언급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끔적이면 주일성수를 하는 등 기독교 신앙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 애썼다고 한다. 흥사단에도 안창호의 기독교관이 투영되어 있는데, 안창호가 기독교의 정수라고 이해한 아가페적 사랑을 정의 돈수와 연결시켜 이를 에너지로 사회개조로 전이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최기영, 『島山安昌浩의 기독교 신앙』, 『도산사상연구』 5, 1998. ; 이만열, 『도산 안창호와 기독교 신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02. ; 조경근, 『안창호 선생의 기독교 신앙과 정치사상』, 『민족사상』 9권1호, 2015. 등 논의 참조.)

2. 회개와 거듭남, ‘재생’의 원리

이광수가 『재생』을 통해 전(前) 시대를 해부해 보이겠다고 한 것 중 하나는 민족운동에 대한 강한 욕망이 없이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지식인 청년들의 모습이다. 『장한몽』에서 이수일과 심순애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다가 정인 관계가 된 것과 달리, 『재생』의 두 주인공 신봉구와 김순영은 3.1운동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봉구와 순영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동지’로 만났다. 그러나 봉구의 사회적 열정은 ‘아름다운 여자’ 순영 앞에서는 그 목적이 전도된다. 그는 “무슨 까닭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였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순영이가 기뻐해주고 애썼다고 칭찬해주는 것”만이 기쁨, 사랑이라는 열정에 휘둘리는 한 청년이 된다. 사회적 욕망이 개인적 욕망으로 전유되어 ‘나랏일’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과 그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다.¹⁸⁾ 순영이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것은 그 자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오빠 순홍의 영향 혹은 당시 지식인 청년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사회적 욕망이었을 뿐이었다.

봉구가 욕망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순영과 재회하고, 순영과 원산에 가면서도, 순영의 확답을 얻기 전까지는 육체적 정욕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 애쓴다. 그는 백윤희처럼 돈을 이용해 자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봉구에게 사랑은 ‘신의(信義)’의 또 다른 말이다. 그러나 순영은 봉구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봉구가 사랑을 얻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순영은 재물과 사랑 모두를 욕망했다. 사

18)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는 이미 3.1운동의 실패 이후이므로, 멀지 않은 과거라 할지라도 지식인 청년들의 사회적 열정이 소설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 위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독립을 갈망한다는 지식인 청년들의 과거는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회와 격리된 감옥에 있던 봉구와 달리, 순영은 '3.1운동 이후의 조선'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맘이 모두 식어서 나라나 백성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다는 생각이 적어지고 저마다 저 한 몸 편안히 살아갈 도리만 하게 된 바람"이 학교 내에도 불고, 결국 일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현실적 욕망을 따르게 된 것이다. 순영은 백윤희가 준비해 놓은 집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을 주고 그 '집'을 향유할 권리를 샀다. 그래서 순영을 첩으로 삼고 육체적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 그에게 매독을 옮겼어도 백윤희는 단죄되지 않지만, 타락한 부르주아인 백윤희에게 넘어간 김순영은 결국 '재생'하지 못하고 백윤희의 아이와 함께 자살한다. 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백윤희와 달리, 순영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욕망을 표출할 줄 알았던 지식인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무정』의 정결성을 표준으로 내세웠을 때, 이러한 『재생』의 세계는 "은밀히 타락"한 『무정』 속 인물들이 살고 있는 "훼손된 가치의 세계"¹⁹⁾이고, 그러므로 '은밀히 타락'하고 회개를 유예한 순영은 '재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식인 청년들이 보여주었던 사회에 대한 열정은 3.1운동 이후 자본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만나 개인적 욕망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돈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1920년대를 살아가야 하는 지식인 청년들은 그에 따른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존재들이 되어 가는 것이다. 봉구나 순영은 '만세운동'이라는 사회적 열정이 표출되는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있던 봉구와 현실 속에 있던 순영의 지향점은 달라진다. 순영은 다방골 백윤희의 집이라는 좁은 욕망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고, 봉구는 인천의 미두중개소라는 거대한 식민지 자본의 흐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감옥에서 나온 봉구는 순영이 사랑보다 '돈'을 선택

1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숲, 2001, 138면.

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돈을 모으기로 결심한다. 봉구가 흔들릴 정도로 3.1운동 이후 조선은 지식인 청년이 그들의 사회적 열정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광수는 『금색야차』나 『장한몽』에서 배신당한 남자 주인공(하자마 간이치와 이수일)이 돈을 벌기 위해 고리대금업자가 된 것과 다르게 봉구를 미두중개인으로 설정한다. 악착같이 돈만 벌어들이는 ‘황금 두역시니(금색야차)’처럼 묘사되는 이수일과 다르게 봉구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현대의 최전선에 선 인물로 그리는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개인적 욕망을 좇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눈을 가진 미두중개인인 봉구는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듯 천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다.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봉구의 이런 점은 ‘돈’이 만들어내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영과 대비된다. 돈에 대한 이들의 위치 차이는 결국 사회적 열정을 가진 존재로의 ‘재생’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든다. 재생의 과정은 사회적 열정의 재획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²⁰⁾ 진화론의 관점에서 『재생』을 보는 와다 도모미는 이 소설에서 재생하는 등장 인물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생’을 ‘regeneration’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1919년 이후 바라던 조선 민족의 미래상을 그리기 어

20) ‘재생’의 주체는 누구인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동인은 순영이 자살하고 봉구는 “마음에 업는 생활을 자폭적 기분으로 ‘사회나 위하여 바치자고 자기희생적 심경’을 갖고 있으니 누구의 ‘재생’도 없다고 했다. (김동인, 앞의 글, 248면.) 김윤식도 봉구나 순영에게 재생적 의미는 없고, 오히려 재생은 인천 미두상 김의관의 아들인 김경훈에게서 나타나며, 재생할 필요가 없는 훼손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은 순홍이라고 한다. (김윤식, 앞의 책, 149면.) 이는 『재생』이 순영의 등장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구조여서 순영을 서사의 중심으로 본다면 순영의 죽음은 ‘재생’의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봉구가 작은 마을의 선생이 된 것을 ‘재생’이라고 보거나 명확한 상승의 서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재생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렵게 되면서, 이 소설은 진화 저해 요인을 제거하며 진화한다는, 개인의 재생이 아니라 민족의 ‘degeneration’(퇴화) 및 ‘regeneration’(재생)²¹⁾을 그리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소설은 순영 및 그녀와 관계를 맺는 남성의 ‘번식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한다.²²⁾ 이재선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소설을 보았다. 그는 이 소설에는 신봉구의 ‘재생-플롯(regeneration-plot)’과 김순영의 ‘퇴화-플롯(degeneration-plot)’이 병렬 교차하는데, 특히 순영의 철저한 퇴화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재생을 지향”하는 내용이 강조된다고 하였다.²³⁾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시골의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봉구의 모습과, 순영의 죽음 이후 ‘신봉구의 처’라는 묘비를 세우는 봉구의 모습을 ‘재생’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소설에서의 ‘재생’은 ‘reborn’ 즉 ‘거듭남’을 의미한다. 도산 안창호는 민족지도 이념의 근본 사상으로 ‘거듭남’을 언급했다고 한다.²⁴⁾ ‘거듭남’은 성경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21) 와다 도모미, 앞의 책, 216-217면.

22) 위의 책, 247-248면.

와다 도모미는 순영의 선생님인 P부인의 자기희생론도 종교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지만 사실 진화생물학의 중요한 쟁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P부인이 강조한 ‘살아남는 것이 체크리파이스’, ‘써브해야 한다’라는 말 역시 살아 남아 자손을 낳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 즉 “번식을 위해 자기보존을 도모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같은 책, 258면) 순영의 존재는 봉구와 경주 사이의 우성형질의 보존과 확산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독을 전달한 순영은 민족을 위해 아이를 동반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책, 270면)

23)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175-177면.

24) 전영택의 도산 안창호에 대한 회고에 따르면, 도산은 산상수훈 중 한 구절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를 좌우명으로 삼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한 말씀을 민족지도 이념의 근본 사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전영택, 『안도산 선생』, 『도산안창호전집』 13,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431-432면.) 안창호와 이광수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도산이 강

에 등장한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로, 예수와 반목하는 이들이었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는 그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다.²⁵⁾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결국 ‘율법’(메시아가 오기 전까지의 구약의 것들)을 버리고 ‘메시아’라는 존재, 그 사건의 현현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3.1운동의 실패로 일단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욕망이 좌절된 상황(‘율법’)에서, 지금의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한 사회적 열정-점진적 실력양성론-(‘사건’의 현현)을 지녀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남’은 썩어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광수는 타락한 조선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아우르는 ‘부활’²⁶⁾이 아니라 타락한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재생’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장한몽』의 심순애처럼²⁷⁾ 순영도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쳤어야만 할 것이지만,

조했던 이 ‘거듭남’이 이광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요한복음 3:3~7)

26)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다. 이광수는 “참된 종교와 참된 과학으로 더불어 참된 예술이 사람의 동물성을 변화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화하는 새 천사인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인물이다. 그런 이광수에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고로는 용인되지 않는 신화वाद도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는 근대의 과학적 사고가 작동하는 ‘몸’보다는 ‘영’의 문제에 집중했고 ‘거듭남’의 문제를 통해 조선 청년들의 미래를 이끌어가고자 했을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순영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광수의 ‘재생’은 ‘영의 거듭남’을 의미한다. 이광수가 상해에서 도산 안창호를 만나고 그의 사상적 전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타락한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은 사상과 생각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는 특히 P부인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등장한다. P부인은 백윤희의 첩이 된 순영을 볼 때마다 ‘회개하라’고 한다.

바깥 세상에 대하여서는 부자의 첩으로 시집간 것 때문에, 안으로 남편에게 대하여서는 남편의 자식 아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이러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세상 사람의 눈과 남편의 눈을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아무리 혼자 어두운 방 안에 있어서 모든 눈을 다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눈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다.²⁷⁾

‘거짓말쟁이!’ / 순영은 인순을 대할 때에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였다. 자기가 얼마나 이 입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소리를 많이 했던가? 얼마나 ‘남의 첩으로 시집가는 년들’을 꾸짖었던가!

‘음탕한 년!’ / 순영은 또 이렇게 자기를 꾸짖는다. 과연 나는 음란한 계집이다. 이렇게 순영은 인순을 바라보면서 아파한다. 선주를 대하고 선주의 말을 들으면 순영의 맘은 적이 편안

27) 김중배와 결혼한 후에도 이수일에 대한 정절을 지키던 『장한몽』의 심순애는 어쩔 수 없이 이수일에 대한 정절을 잃은 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죽지 못하였다. 이후 이수일이 자신을 받아주기를 원하지만 김중배에게 정절을 잃은 몸이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한 상태대로 이수일과 합일할 수는 없었다. 심순애는 이수일의 꿈속에서 잔인하리만치 죽임을 당하고 또 죽으려 한다.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죽는 의사(擬似) 죽음을 거치고, 현실에서는 정신병을 앓고 난 후에 비로소 심순애는 새로운 심순애로 부활하고 이수일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28) 이광수, 『재생』, 애플북스, 2014, 298면. 앞으로 『재생』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하였다. 그러나 인순을 대할 때에 그가 아무 말을 안 하여도 다만 그가 앞에 잇다는 생각만이 순영이의 양심을 피가 나도록 푹푹 찢렸다.(290면)

처음 백윤희에게 몸을 허락한 후 순영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 매우 괴로워하며 그 괴로움을 '젓값'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학교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학교 밖 자본주의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쉽게 동화된다.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원산의 별장에서 백과 방탕한 생활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기고 순영은 봉구와의 약속을 깨고 백윤희와 결혼했다. 순영은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정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른 이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 안에서는 P부인의 청교도적인 시선을, 학교 밖에서는 자신의 외모와 행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의 시선에 매여 있다. 또 3.1운동에 참여했던 훼손되지 않았던 시기의 그를 알고 있는 봉구나 순홍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강인순과 P부인은 순영의 양심과도 같은 인물이다. 이들의 끊임 없는 질책에도 순영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계속 재생을 유예한다. 순영은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다방골 집'이라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거듭나는 길을 택할 수 없다. 대신 순영은 봉구에게 용서를 받아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래서 순영은 미두중개인이 된 봉구를 다시 만난 이후, 수차례 봉구에게 '용서'를 빈다.

봉구가 순영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봉구와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만도, 순영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봉구는 순영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이상과 모든 의무를 다 내버"리고 "오백만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위치에 있던 청년이 당대 다른 청년과 다름없는 속물적 인간,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광수가 강조한 지도자의 요건인 ‘정결성’을 보여주는 텍스트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다.²⁹⁾ 즉, 봉구도 순영도 ‘사랑’ 혹은 ‘이상’, ‘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둘을 다 가지려 했던 1920년대 조선의 청년들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봉구는 순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돈을 원했고, 결국 그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순영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죄 없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봉구는 순영을 정죄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이광수는 봉구의 타락한 삶과 지사적 삶을 교묘하게 분리하였다. 『장한몽』에서는 고리대금업자가 되어도 이수일은 변성명하거나 거처를 옮기지 않지만 『재생』의 신봉구는 ‘김영진’이 된다. 봉구는 미두중개인의 삶을 택하면서 인천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름도 ‘김영진’으로 바꾼다. 성도 이름도 사는 곳도 완전히 바꾼 것은 이전 삶과의 완벽한 분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열정만큼 순영을 사랑했던 서울의 신봉구의 삶은 순영의 결혼과 함께 사라졌다. 이는 미두중개인의 삶을 신봉구의 삶과 분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즉 자본주의적 인간인 ‘김영진’은 이상주의적 인간 ‘신봉구’와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살인사건을 통해 신봉구의 삶 위에 덧씌워진 김영진의 삶은 소거된다.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삶이 신봉구의 본질을 해칠 수는 없고, 김영진에서 신봉구로 돌아온 후 신봉구는 자연스럽게 ‘재생’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광수가 구축해 놓은 ‘거듭남’ 즉 ‘재생’의 체제 안에서는 속죄의 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과정을 거

29)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하다.³⁰⁾ 봉구에게는 감옥 안에서의 격리된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속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에 반해, 봉구를 살리기 위해 증인이 된 순영에게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재판이 공개적인 속죄의 자리였다. 그곳에서 순영은 늘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던 경주의 사랑이 정욕으로 점철된 자신의 사랑보다 훨씬 위대한 것임을 깨닫고 경주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봉구를 도우려 한다. 그러나 순영의 재생은 계속 유예된다. 순영은 안락한 삶을 놓치는 것이 두려워 증언을 반복하기도 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선주의 거짓말을 묵인하기도 하면서 회개의 순간을 계속 유예한다. 강인순과 P부인도 증언하는 순영의 모습에서 인생의 향락이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늦지 않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순영은 거듭나는 순간을 계속 유예한다. 백운희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도 순영은 김교수의 추파에 흔들리는 등, 말로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돈의 힘에 계속 이끌린다. 순영은 P부인에게 “속아서” 잘못 결혼해 괴로운 생활을 하였다고 하지만 P부인은 “순영이 속인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순영이 속인 사람은 순영 자신임을 확인시킨다.(429면) P부인과의 이 대화는 순영이 거듭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것이지만 순영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다. P

30) 이광수는 재판과 감옥이라는 식민지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속죄와 재생이 이루어지게 설정했다. ‘법’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도덕적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예수는 세금과 헌금에 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며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의 통치 체계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였다. 이광수 역시 이 점을 그대로 차용하여 조선인에게는 부당한 면이 있는 사법체계가 조선인들의 도덕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려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도자상의 필요성을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부인의 자기희생적인 삶과 순결한 삶을 동경하면서도 이미 더러운 자신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포기한다.

순영의 스승 P부인은 순영의 롤모델과 같은 존재로 여러 번 언급된다. 그는 W여학교를 세상과 유리된 정결한 공간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P부인은 순영과 강인순을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교사로 키우고자 했으나, 순영은 실패하고 인순은 성공했다. 그런데 P부인을 통해 제시되는 교사상은 이광수가 꿈꾸었던 지도자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P부인은 이광수가 메이지학원에서 보았던 기독교인 선생님들과는 달리 청교도적 생활을 몸소 실천한다. 그는 조선의 상황보다도 학생 하나하나가 정결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P부인은 어떤 면에서 『무정』의 이형식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은 강요하지 않으며, 원리원칙을 지키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P부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안에서만 행동하려 한다. 그래서인지 P부인은 '실족케 하는 지체가 있다면 빼어 버리는 것이 낫다'는 성경말씀³¹⁾을 지키려는 듯,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재생을 유예하던 순영을 포기한다. 순영이 자신의 죄로 인해 장님으로 태어난 딸과 함께 자살하기 위해 금강산에 갔을 때, 순영은 P부인과 교사가 된 강인순과 함께 수학여행에 온 후배들을 만난다. 순영을 본 인순은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P부인은 순영을 한번에 알아보지도 못했다. 조선의 다음 지도자를 키우는 교사인 P부인과 인순에게 재생 시험에서 탈락한 순영은 오히려 조선을 실족케 하는 지체인 것이다. 이들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재생을 유예하고 포기한 순영이라는 지체를 빼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가 강조하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광

31)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태복음 5:29~30)

수는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진짜 ‘사랑’으로 보았다. 이광수에게는 이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역시 지도자의 요건이었다. 그러나 봉구 역시 ‘사랑’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이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했다. 실천적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이는 봉구조차도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온 순영을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봉구의 재생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완성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³²⁾

3. 정결한 지도자로의 ‘재생’

『재생』은 『흙』의 투사적 지도자상의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흙』은 살여울에서 서울로 가는 허승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변호사가 된 허승은 아내 정선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일말의 고민이나 걱정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살여울로 돌아간다. 이는 ‘살여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내적인 준비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흙』에는 보이지 않는 지식인 청년의 내적 고민은 『재생』의 봉구를 통해 나타난다. 봉구는 “사내답고 그러고도 항용 학생들과 같이 난잡하거나 빠거나 여자에게 추근추근한 빛이 없이 일종 위엄이 있고도 다정”하며 “많은 청년들이 그를 믿고 그의 말에 달게 복종하”는, “얼마 아니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청년이었다.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이지만 만세운동과 같이 민족을 위한 일을 하던 봉구가 갑자기 시골로 들어가 한 마을

32) 이러한 재생의 완성형은 『흙』에서 허승이 간음한 아내인 정선과 그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 실천적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내적인 고민과 내적 단련이 필요하다. 이 내적 단련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바로 '감옥'이다. 세상과 격리된 감옥 안에서 봉구는 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객관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공간에서 봉구는 비로소 재생의 마지막 과정을 지난다.

봉구에게 감옥은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사막'과도 같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다. 그렇지만 악명 높은 핍박자였던 바울의 회심을 믿을 사람은 얼마 없었다. 게다가 예수를 만나기는 했어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러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여의 내적 단련과 준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인준'보다도 자신의 본심을 인정해줄 때까지 기다리며 후일을 도모하는 내적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바디우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새로운] 주체의 돌발적 출현" 공식적으로 인준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를 소환한 "목소리의 권위"만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투사로서의 그의 여러 자질을 담보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유예 기간을 견디었다고 했다.³³⁾ 봉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두 중 개인 '김영진'이 아닌 민족의 지도자 '신봉구'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 신봉구로서의 내적 각성이 필요했다. 이광수가 그리는 지도자상은 사도 바울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³⁴⁾ 학식이 풍부하며 자기

33)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현성환 역, 새물결, 2008. 42면.)

34) 이광수는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을 눈여겨 보았던 듯하다. 감옥에 있던 봉구가 사색 과정을 거쳐 죽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 새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할 때, "봉구의 눈에서는 그 눈의 밝음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진 것이다"(381면)라고 한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이 비쳐 눈이 멀고 예수를 만난다. 이후 사흘 동안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리라") 그는 핍

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용기를 갖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바울의 투사적인 지도자상은 이광수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도자상과도 일치한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전투적 담론’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는 사도 바울의 담론은³⁵⁾ ‘나’를 내세우지 않고 협동을 강조하는 지도자 봉구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는 도산이 강조한 무실역행, 협동, 이상촌 운동 등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봉구가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척박한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봉구의 감옥 생활은 그가 거두는 시간, ‘재생’을 수련하는 시간이 된다.

감옥에서 봉구가 얻은 것은 지도자로서의 사명감뿐이 아니다. 봉구는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도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마음의 죄 때문이다. 이는 『흙』의 허송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광수의 지도자상이 갖추어야 할 제 1의 요건, ‘정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봉구는 김 참사가 어리석은 것과, 그의 딸 경주가 자기를 사모하는 것과, 또 그의 아들 경훈이가 못난이 같은 것을 볼 때에 김 참사의 재산에 탐심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김 참사를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생각까지 한 일은 없지만 모

박자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다. (사도행전 9:1~18) 심지어 재생이 완료된 후, 봉구의 꿈에는 베드로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 놓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392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던 사건을 차용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라비아의 사막에서의 단련이나 눈에서 비늘이 벗기고 새 사람이 된다는 설정 역시 바울의 것을 차용한 것을 보아도 이광수가 자신이 만든 지도자상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겹쳐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가 보기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힘든 선교의 과정을 거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척박하고 무정한 조선인들의 지도자로 서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였던 듯하다.

35) 알렉 바디우, 앞의 책, 105면.

든 재산권이 자기의 손에 들어올 때에 알맞추 김 참사가 죽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였고, 이따금 순영에게 대한 생각이 하도 원통할 때에는 어떻게 주인을 속이든지 금계를 깨뜨리고 라도 몇 십만 원 돈을 훔쳐낼 수만 있으면 훔쳐내려는 생각도 났다. 그것을 안 한 것은 양심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이롭지 못한 일인 줄을 알기 때문이었다. (370면)

주인을 죽인 것은 물론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주인을 죽일 결심까지 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은 주인을 죽인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다만, 주인을 죽인다고 그 재산이 온통으로 자기의 손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알 만큼 약고, 또 설혹 그 재산이 자기의 손에 들어올 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사람을 죽일 만한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 까닭에 주인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다.

‘내가 주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 것을 일러바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뒤쳐졌다고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될까?’ 하고 봉구는 한숨을 쉬었다. (372면)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 만으로도 살인자와 다름없다고 여기는 봉구의 이런 과도한 정결함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광수는 성경 중에서도 마태복음 5~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山上垂訓)과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했다고 했다.³⁶⁾ 톨스토이 역시 산상수훈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는 평민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랑’이라고 보았다.³⁷⁾ 산상수훈³⁸⁾은 윤리적

36) 이광수, 『두웅과 나』(『신인문학』 1936.1.),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9, 595면.

이 글에는 이광수가 톨스토이를 통해 기독교를 수용하였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타난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예수의 가르침과 다르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죽어도 괜찮은 경우를 말하는 교회의 왜곡된 모습에 실망하여 ‘톨스토이를 통한 예수를 숭배’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행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로,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생활강령이자 법이었던 유대인의 율법과 대조하여 실천적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기에서 예수는 외식하는 율법은 폐하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율법과 대비해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밖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장면이다. 이것이 바로 이광수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정결성’이다. 마태복음 5장 19~20절³⁷⁾에서 예수는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뒤이어 노하는 마음만으로도 살인죄로 심판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며,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한다.⁴⁰⁾ 이는 인용문에 나온 살인사건에 대해 묻는 검사의 질

37) 이광수, 『톨스토이의 人生觀-그 宗教와 藝術』(『조광』, 1935),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9, 488면.

이광수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톨스토이의 종교관을 “사랑과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한다. 톨스토이는 박애주의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를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이다.

- 38) 최기영에 따르면, 안창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마 3:2, 4:17, 5:6, 6:33, 7:14 등이라고 한다. 이는 이광수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했던, 그리고 톨스토이도 강조한 산상수훈의 구절과 겹친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실역행, 사랑과 관련된 내용임을 상기한다면, 이광수가 산상수훈을 그의 기독교관의 기본으로 삼았던 것에도 안창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최기영, 앞의 글)
- 3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40)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1~22),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

문에 어느 하나 부인할 수 없었던 봉구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죽이지는 않았으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있어도 행하지는 않았으니 검사의 말을 부인해도 되지만, 봉구는 부인할 수가 없다. ‘외식(外飾)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⁴¹⁾은 ‘외식(外飾)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구절이 있다. 예수는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행위 보다는 마음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그대로 갚는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도래할 그의 수고의 결과-이상촌 건설, 뛰어난 실력 등-를 놓았다. 그래서 그는 외식하는 삶을 경계하는 것을 지도자 중요 요건으로 삼았다. 이광수는 특히 “바른 길의 첫 조건은 거짓이 없음”이라며 외식을 경계했다.⁴²⁾ 봉구가 순영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 거짓으로 답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거짓과 외식을 싫어하는 봉구가 얼마나 정결하려 노력하는 인물인지 알 수

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7~28)

41)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누가복음 12:1~3)

이광수는 예수의 사상의 정수를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한 문헌은 누가복음 12장이라고 보았다. 톨스토이를 따라 산상수훈을 애독하였으나 누가복음 12장이 더욱 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광수, 『예수의 사상-누가복음 12장을 텍스트로』(『삼천리』 1937.1.), 『이광수 전집』 8, 삼중당, 1979, 517-519면.)

42) 위의 글, 518면.

“만일 예수께서 오늘에 다시 나오신다 하면 역시 오늘날 지도자 계급에 대하여 바리새교인에 대한 것과 꼭 같은 책망을 할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거짓의 세계가 아니냐. 바리새교인의 세계가 아니냐. 조선은 바야흐로 거짓의 외식의, 조선이 아니냐.” (위의 글, 같은 면)

있다. 마음에서부터 정결한 삶, 그리고 겉과 속이 동일하게 의무와 사랑을 실천하는 산상수훈 식의 정결함이 바로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요건인 셈이다.

‘정결성’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본 봉구는 드디어 “자기의 이기적이던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를 높게 아름답게 보아오던 것이 부서”진다. 그러자 자신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① “보라, 예수께서는 어찌하였는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을 빌지 않았다. 이것이 진실로 사랑이다. 아니 나는 일찍 순영을 사랑하여본 일이 없었다. 아무도 일찍 사랑하여본 일이 없었다. 나는 오직 순영을 욕심내었던 것이다. 순영으로 나의 노리개를 삼을 양으로, 장난감을 삼을 양으로 욕심을 낸 것이다. 그러다가 내 것이 안 되매 나는 스스로 순영에게 대한 나의 사랑이 참되고 깨끗지 못함을 뉘우칠 줄을 모르고 도리어 순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다. 내가 순영을 원망할 무슨 권리를 가졌던가?”

“그뿐인가, 순영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수치를 당하였다. 그렇건만 나는 오직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나는 진실로 값없는 사랑이다. 나는 진실로 죄인이다.” (356면)

② ‘만일 다시만 세상에를 살아 나가면……. 다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몸을 바치는 사랑의 생활을 하리라. 아아, 그 생활이 참으로 얼마나 가룩할까, 얼마나 깨끗할 것인가.’ (중략)
‘나는 지금까지에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 하나 이뤄놓은 것이 없다. 사람들의 땀을 먹고 땀을 입고 땀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십칠 년 동안에 많은 동포의 피땀, 기름땀을 허비하면서, 무슨 좋은 일 하나를 이뤘는가, 한 가지도 없다. 농촌 소년

은 소라도 먹었고 밭의 풀이라도 뽑았다. 지게꾼 아이들도 바쁜 사람의 짐 하나라도 날라주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도 없다. 아아, 명예를 따르다가, 연애를 따르다가, 돈을 따르다가, 마침내 이 처지를 당한 것이다. 만일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나는 큰 죄인이다!’ (358-359면)

③ ‘나는 어찌하여 그의 호의를 갚나, 무엇으로나 내가 세상에 와서 받은 수없는 사랑과 수없는 호의, 지금까지는 잊어버리고 있던 이것을 무엇으로나 갚나?’ (중략)

‘그렇다! 나는 세상을 원망할 아무 이유도 없다. 나는 오직 인류에게 빛을 진 사람이다. 그 빛이 얼마나 되나, 한없이 큰 빛이다. 인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내게 그네의 피땀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오직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 그것은 그 유산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잊었다!’ (360-361면)

봉구는 감옥 안에서의 사색을 통해 자신이 순영을 사랑한다고 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순영에게 복수하겠다고 돈을 쫓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는 데에 이른다. 그는 감옥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 나선다. 처음 봉구와 순영에게 ‘사랑’은 남녀간의 관계,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랑이나 돈이나’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봉구에게 ‘사랑’은 ‘돈’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담보한 것이다. 그 ‘사랑’은 남녀간의 애정을 넘어선 전 인류를 향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랑이 지금이 이기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은 봉구는 그동안 자기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나야 하겠다. 낡은 세상을 고쳐서 새 세상을 만들어

야 하겠다. 불타와 예수와 그 밖에 모든 성인 성도들이 뿌려놓은 씨를 거둘 때가 왔다. 거둘 사람을 기다린다. 그 사람은 내가, 내라야 한다!”(391면)라며 각성을 한다. 이제 봉구의 재생 준비는 완료되었다. 깨달음의 시간을 통해 거듭난 봉구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조선인들 나아가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까지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봉구가 시골의 작은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당위성은 충분히 드러난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었던 가장 말단의 사람들에서부터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작은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그리고 지역으로 도시로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그 기운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도산 안창호가 말년까지 시도하였던 이상촌 운동과 같은 점진적 실력 양성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이광수가 파악한 ‘그리스도의 혁명사상’ 즉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남을 죽이는 대신 나를 죽임으로 혁명의 수단을 삼는 것⁴³⁾과도 일치한다. 이광수는 이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혁명사상’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혁명사상은 과거에 있어서보다도 미래에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전인류를 풍미(風靡)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혁명사상’은 3.1운동 이후 타락한 조선을 이끌어 새 세계로 만들어 나갈 준비를 마친 봉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⁴⁾ 경훈

43) 이광수, 『그리스도의 革命思想』(『청년』 1931.1.), 『이광수 전집』 10, 254면.

44) 이광수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혁명사상’이 봉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은 감옥에서 나와 시골로 갈 것을 결심하는 봉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봉구는 모든 조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 한 비전을 본다. 그것은 “맨발로 허름한 옷을 입은 예수가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한 순박한 어부들과 불쌍한 병인들을 모아 데리고 앉아서 일변 가르치고 일변 더러운 병을 고쳐주는 광경”이다. 특히 이 장면은 이광수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산상수훈과 또 다른 설교, 기적을 펼치는 장면이다. 봉구의 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계급적으로는 바리새 교인의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서로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희망과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고 서술하면서(494면), 로마

을 위해 대신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봉구의 자기희생적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봉구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 3.1운동 이후 타락과 함께 사라졌던 정결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사랑이 민족을 위한 일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박애주의 정신과 자기희생적인 면모라는 정결한 지도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그는 “네 사랑을 발로 밟아버리고 달아난다 하더라도 너는 그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직 그의 행복되기만 빌” 수 있게 되었다.(554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기에 봉구는 비로소 민족을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안락을 누릴 때까지 내 몸에 안락이 없으라. 다 한가히 놀 수 있을 때까지 내게 한가함이 없으리라” “불쌍한 조선 백성에게로 가자! 농부에게로 가자! 거기서 그들과 같이 땀 흘리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그들과 같이 늙고 같이 죽어 그들과 같은 공동묘지에 묻히”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575면) 그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시골로 들어갔지만 서울에도 운영이 일한 영등포 공장지역처럼 조선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며 사는 곳이 있는데도 봉구가 왜 농촌으로 갔는지, 또 농부들의 동무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는지, 또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운영을 포용하지 못한 것에서도 봉구의 말과 행동에 모순되는 면이 보인다. 아마도 이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이나 매순간 노력하던 안창호의 모습 등에서 배운 도덕적 정결성을 완벽하게 이루고 싶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조선의 ‘뛰어난’ 지식인 청년이라는 자의식이 충돌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자신을 철저

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과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을 동일시한다. 그러면서 “머리 둘 곳 없”는 “얼굴이 초췌한” 예수의 혁명적 운동을 봉구 자신(혹은 봉구를 통해 욕망을 투영한 이광수)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히 꺾어야 하는 욕망의 상충이 결국 이런 모순적인 면을 낳은 것이다. 이 모순은 3.1운동 이후 귀국한 후 이광수의 욕망을 은밀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결론

이광수의 『재생』은 당대 조선인들이 익숙했던 ‘돈이나 사랑이나’라는 신과적 구조에 “당시의 청년계급의 사실적인 일단면”이라는 해부를 통해 “차시대의 진로를 암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쓰인 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은 만세운동에도 참여했던 지식인 청년 ‘신봉구’가 만세운동 이후 조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재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점에서 신봉구라는 지도자는 이형식(『무정』)과 허송(『흙』)이라는 지도자의 중간쯤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조선의 지도자의 책무를 깨닫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상을 품고 준비하는 이형식은 조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여러 덕목들-이웃과 민족, 세상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정결성’이라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깨닫고 준비하는 주체인 신봉구가 된 것이다. 봉구를 통해 그 일단이 보이는 이 실천적 지도자상은 『흙』에 이르면 『민족개조론』에서 언급했던 나태하고 협동하지 못하는 살여울을 이상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투사적 지도자로 거듭난다.

특히 이광수가 제시하는 지도자상에는 그의 사상의 근저가 되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이광수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성경적 내용과 톨스토이의 기독교관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과 무실역행을 강조하는 안창호의 기독교관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광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아가페적 사랑을 기독교의 혁명 사상으로 파악하였는데, 『재생』에서는

신봉구의 감옥 안에서의 재생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갖춘 혁명적 지도자로 거듭날 준비의 시간을 보낸다. 이 ‘재생’은 자신이 타락해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회개와 속죄를 기본으로 하는 ‘거듭남’을 의미한다. 재판과 수감 과정 중 봉구는 이 ‘거듭남’의 과정을 착실히 이행하지만, P부인과 강인순의 계속되는 강권에도 순영은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다. 그리고 봉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정결한 지도자로 재생하고 실천적 지도자가 될 준비를 마친다.

이렇게 이광수의 『재생』은 산상수훈의 핵심을 투영한 정결한 지도자가 3.1운동 이후 조선에 필요한 지도자라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자살을 하러 가는 순영을 온전하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봉구는 이상적으로는 재생에 성공하였지만, 실천적으로는 완벽하게 재생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듭난 지도자상은 부정한 아내와 그의 자식을 받아들이는 『흙』의 허승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광수는 신봉구를 통해 투사적 지도자, 실천적 지도자의 각성과 거듭나는 단계를 그려 보려 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광수, 『재생』, 애플북스, 2014.
 이광수, 「작자의 말」, 『동아일보』 1924.11.8.
 이광수, 「義氣論」, 『조선문단』 1924.12.
 이광수, 「그리스도의 革命思想」, 『청년』 1931.1.
 이광수, 「余의 作家的 態度」, 『동광』 20, 1931.4.
 이광수, 「톨스토이의 人生觀-그 宗教와 藝術」, 『조광』 1935.
 이광수, 「두옹과 나」, 『신인문학』 1936.1.
 이광수, 「예수의 사상-누가복음 12장을 텍스트로」, 『삼천리』 1937.1.
 「대담-이광수씨와 기독교를語る」, 『삼천리』 1932.1.

2. 참고자료

- 강지윤, 「한국문학의 금욕주의자들」, 『사이間SAI』 16, 2014. 189-221면.
 강현국, 「계몽과 사랑,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하여-『개척자』와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 2013. 119-140면.
 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 2015. 219-254면.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력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50, 2012, 5-30면.
 김동인, 「春園研究」(七), 『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7, 256-268면.
 _____, 「春園研究」(八), 『삼천리』 제7권 제7호, 1935.8, 269-281면.
 김병구, 「이광수 장편 소설 『재생』의 정치 시학적 특성 연구」, 『국어문학』 54, 2013. 183-206면.
 류수연, 「타락한 ‘누이’, 그리고 연애서사-이광수의 『재생』 연구」, 『구보학보』 13, 2015. 233-256면.
 서여진, 「『재생』에 나타난 『장한몽』의 구조」, 『춘원연구학보』 5, 2012.12. 305-329면.

- 서영채, 『자기희생의 구조-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 2013. 207-242면.
-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서희원, 『이광수의 문학·종교·정치의 연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근대의 영웅, 부자의 탄생』, 『한국학연구』 34, 2014. 115-144면.
- 윤영옥, 『자유연애, 문화자본, 그리고 젠더의 역학-이광수의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8, 2014. 225-248면.
- 이만열, 『도산 안창호와 기독교 신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02. 46-87면.
- 이혜령, 『정사(正史)와 정사(情史) 사이 :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40, 2009. 230-275면.
- 조경근, 『안창호 선생의 기독교 신앙과 정치사상』, 『민족사상』 9권1호, 2015. 41-70면.
- 최기영, 『島山安昌浩의 기독교 신앙』, 『도산사상연구』 5, 1998. 219-244면.
- 최주한, 『민족개조론과 相愛의 윤리학』, 『서강인문논총』 30, 2011, 295-335면.
-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 『한국근대문학연구』 5(2), 2004. 64-92면.
- 고미숙, 『연애의 시대 : 근대적 여성성과 사랑의 탄생』, 북드라마, 2014.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숲, 2001.
-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전영택, 『안도산 선생』, 『도산안창호전집』 13,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 소명출판, 2005.
- _____,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박홍규 역, 들녘, 2016.
-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현성환 역, 새물결, 2008.



존 웨슬리, 『웨슬 리가 전한 산상수훈』, 양재훈 역·주해, KMC, 2015.
와다 도모미,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옥, 2014.

<Abstract>

The Repentance and Rebirth,
Being a Faithfulness leader
—on the *Rebirth*(『再生』) of Lee Kwang-soo—

Jung, Ha Nie

This paper aims to determine the leadership in the *Jaesaeng*(*Rebirth*, 『再生』) of Lee Kwang-soo. Lee showed the corrupt society of Chosun after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referring to the melodramatic structure known as “Money or love?” And through this, Lee presented a new youth leadership as a new generation’s career, ‘Shin Bong-gu’. This new leadership is a transitional between the leader as a teacher(Lee Hyung-sik of *Heartlessness*) and the leader as a fighter(Huh Soong of *The Soil*). The Christian view that Lee was influenced by was building leadership. The love, the point of Christianity had turned the intellectual young man into the leader of the nation. Bong-gu’s love had changed a agape love toward the world. It’s because there was a process in which Bong-gu faced himself with a depreciative and repentant process. After undergoing the process of rebirth, Bong-gu was finally ready to become a leader.

Key words: Lee Kwang-soo, Rebirth(『再生』), a leader, repentance, rebirth, faithfulness, love



투 고 일 : 2017년 10월 14일 심 사 일 : 2017년 10월 20일-11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